

우리나라

寄生虫管理事業 現況



韓 學 錫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

나. 寄生虫 感染實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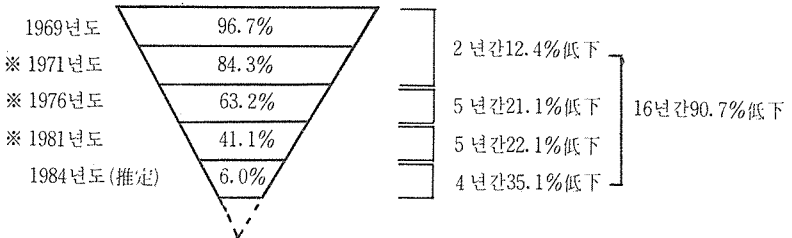
'81년도 제 3차 한국장내 기생충 실태조사에 의하면 총란 양성율이 41.1%로 나타나 있다.

이당시만 해도 많은 국민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는 사실을 알수 있었으나 10

년전인 71년도보다 무려 43.2%나 감염율이 저하되었다.

또한 69년도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84년도의 양성율을 6%(추정)로 볼 때 90.7%라는 엄청난 양성 저하율을 보이고 있다.

◇ 寄生虫 感染率 低下趨勢分析



이는 70년도 국민 1인당 GNP 243弗에서 '84년도 1998弗로 생활수준이 현저히 향상되고, 이와 아울러 검사사업도 연평균 15,806천명으로 대폭 확대 실시하는 한편, 집단관리를 한층 강화 한데서 기인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생 검사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를 근간으로 하여 경제성장, 우수 의약품(구충제)의 개발 등에 힘을 입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一 例로 일본의 경우 '61년도 회충 양성율이 12.8% (우리나라 80년도 수준)에서 '79년도 0.1%로 저하될때까지 약 18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의 기생충 관리사업은 그야말로 劃期的인 것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한국의 회충 양성율 '71년도 : 54.9% → '84년도 6%).

그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지속되면서도 간흡충, 요충등은 다소 증가하는 면도 있는데 담수어의 生食 습관 상존,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상의 복잡 다변화등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다. 寄生虫 管理事業의 推進體系

일선 보건소의 기생충관리 체제의 미약으로 주민의 可檢物 수집, 구충제 배분 등 극히 補助的 역할에 머문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는 보건소별(또는 지역별) 기생충 다발지역의 양상, 지역적 감염실태, 특이성 등이 일선 보건의료기관 자

체에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寄協의 조직체제는 82년 4월 20일 한국 건강관리협회의 설립으로 양면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계속적인 기생충 감염율의 저하로 국민보건상 기생충으로 인한 危害意識이 점차 소멸됨에 따라 寄協의 사업 감축 및 기능의 축소를 의미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생충관리사업의 時限性 문제에 따른 사전 조치 및 機構, 機能이 전반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Ⅲ. 問題點 및 改善方向

1. 기생충 질환 퇴치를 위한 사업 수행방법이 검사후 투약이라는 획일적 수단에 의하여만 이루어 진다면 사후 조치의 성격이 강조되어 사전예방 또는 봉쇄가 도외시 되는 점이 있다.

따라서 1차 보건의료기관(보건소, 지소, 보건진료소)의 사업 역할을 보완하여 예방·계몽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적 감염 실태, 특수성에 의한 검사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서 토양매개성 다발지역, 하천지역등의 감염 분포도를 파악하여 계획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보건소를 주축으로한 지역단위 사업을 활성화하여 기생충 퇴치사업의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2. 집단검사·투약의 편익성, 효용성은 인정되지만 현재까지는 주로 학생

집단관리 사업추구로 일반 주민 및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업이 활발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를 방지 할 때 전체적인 감염을 저하의 둔화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특히 감염이 취약한 농어촌 주민 및 영세민에 대한 구충사업이 부진한 면이 있는 것이다.

근간에는 꾸준한 집단관리 실시 및 개인위생 향상등으로 기생충 감염이 거의 없는 집단群 (학교)도 나타나는 등 집단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진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일반 주민, 사업장근로자, 영세민에 대한 구충사업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기생충 감염율이 약 10% 내의에서는 감염을 저하가 둔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것은 기생충의 근원적 퇴치가 어렵고 感染原 (要因) 이 상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다시말해서 감염율 10% 정도 부터는 그 이하의 수준으로 끌어 내리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한편 기생충 감염율 0% 早期 실현이라는 목표는 그리 쉬운 문제로 생각되어 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기생충 관리사업의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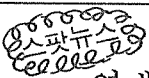
4. 현재 우리는 기생충의 危害로부터 벗어나는 단계에 있으며, 기생충으로 인한 危害意識이 크게 認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기생충 관리사업을 국가주요정책 사업으로 존속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기생충 퇴치사업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은 검사의 내실화, 검사 방법의 다양화 등 量的인 확대 보다도 質的인 효율에 크게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에 실시하는 제 4차 「전국장내 기생충실태조사」는 그 결과가 향후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指標가 될 수 있도록 조사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열대의학세미나 실시

5월 30일, 연세의대

아시아개임과 올림픽경기를 앞두고 급증하게 될 해외여행객에 대한 건강관리를 증점적으로 다룰 제17차 열대의학세미나가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연세대학교 장기원 기념관에서 실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여행과 건강관리”를 주제로 채택하고,

토론 내용은 국내에 유입된 열대성 질환 및 유입가능성, 감염성 질환관리와 보건정책등 8개 내용들이다.

한편 기협홍보실은 건강소식 7월호에서 이번 세미나에 발표된 주요내용들을 특집으로 편집하여 독자들에게 홍보키로 했다.